



## 베란다 창가에서 - 상념

최 나 경 (금호엔지니어링 수자원부 사원)

**10월** 에 달은 붉은 공기를 가르고 거센  
 빗줄기가 농익은 여름밤을 통과하고  
 있다. 형체 없는 폭염 속에 밤낮을  
 시달리던 심신을 휘감고 도는 싸-한  
 서늘함이 청량하기 그지없다. 마른 장마에  
 스스로가 갑갑하기라도 했듯 찌렁찌렁한  
 천둥과 굉장한 빛을 뿜어 대는 번개를 몰고  
 맹렬한 기세로 땅에 꽂히는 물의 파편들.  
 베란다 창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내밀어  
 투닥대는 빗줄기를 느껴 본다. 이 감촉.  
 날랜 물고기 마냥 유연하고 탄력 있게  
 손바닥과 팔뚝에서 유평하는 자유로운  
 사념들.

오랜만이다. 이런 소리. 이런 자연스러운  
 세상의 내음. 생활한다는 이유로, 분배된  
 시간 속에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건조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동차, 전철,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기, 컴퓨터, 호출기,  
 네온사인, 보도블록, 콘크리트 ... 도시의  
 끊임없는 온갖 소리와 시야 가득 채워지는  
 현란한 물질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린  
 어느새 그렇듯 흡수되어 버린 것일까.  
 단순하고 소박하고 담담한, 그래서 더더욱  
 스며드는 사물의 아름다움이 몹시도  
 그리워진다. 선한 눈빛으로 마른 꽃잎과  
 엽서를 건네던 어릴 적 친구며, 주머니의  
 꼬깃꼬깃한 천원짜리 한 장을 두손에 꼬옥  
 쥐어 주시던 외가의 이웃 할머니, 낯선  
 여행길에서 주머니 가득 대추를 채워주며

다시 오라던 민박집 아주머니, 하룻밤새  
 친근해져 길을 나서는 내게 눈물을 보이던  
 섬의 어린 자매. 살아오면서 애뜻한  
 감정으로 새겨진 몇몇의 정들이 스치듯  
 생각된다. 어느 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까. 얼굴은 잊었지만 그 곱던 마음결이  
 새삼 잔잔하게 밀려든다.

5층 아파트 높이를 훌쩍 넘어선  
 백합나무의 잎새 사이로 빗물이 폭포를  
 이루고 있다. 쇠된 울음을 목청껏 울어대던  
 도시의 매미는 어디로 피신해 있을까. 이  
 비 끝에 그들의 소리가 조금은 부드러워  
 질는지. 뉴스를 보니 도시 속에 정착한  
 매미는 시골의 매미와는 달리 요란하게  
 갈라진 소리를 낸다고 한다. 이 여름, 더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미소리에도 꽤나  
 잠을 설쳤다. 곰곰 생각해보니 외가에서  
 들던 그 소리와 사뭇 다르긴 하다.  
 밤낮없는 도시의 불빛과 소음 속에서  
 그들도 나름대로 독해져야 했겠지.  
 도시적응이 곧 생존일 테니. 어디  
 매미뿐이겠는가. 또 다른 종의 곤충,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에게도 예외 없는  
 투쟁이다.

가지를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모여  
 아파트 단지 곳곳에 퍼져나가 알팍한 천을  
 이루고, 또 흘러 흘러 한강으로  
 재촉하겠지. 그리고 보니 난 한강을  
 무척이나 좋아하는구나. 한강은 그

흐름만으로도 흐트러진 시선을 부드럽게  
 거두어들인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바라보는 한강의 물줄기는 한 번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늘처럼 거센  
 빗줄기 속에서는 불투명한 바탕에 거친  
 입자를 뿜어대며 짙은 유희를 보여주고,  
 개인 내일이 오면 맑고 투명한 수채화 한  
 점이 되어 있을 것이다. 때론 파스텔의  
 색채로, 아크릴 물감의 색채로, 크레파스의  
 색채로, 마카의 색채로, 수묵화의 색채로  
 나날이 그 모습은 변화한다. 그러한 한강을  
 바라보며 내 자신, 여전히 삶을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매일을 달리 맞이하며  
 살아가자고, 저 강물을 닦아가자고  
 다독인다. 구하는 이에게 한강은 조용히  
 답한다. 흐름을 아는 자, 침묵의 힘을  
 깨닫는 자, 포용할 줄 아는 자, 거두어들일  
 때를 아는 자,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자에  
 대해. 결코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이젠 창밖의 형체가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대단하다. 들치는 빗물을  
 주체할 수 없어 창을 닫아야겠다. 타닥,  
 타닥, 타다닥. 부딪힘이 격렬하다. 하지만  
 나의 심상은 고요하고, 오래도록 창고  
 깊숙이 넣어둔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본 후  
 부여안은 체온처럼 따스한 공기를 느낀다.  
 이대로 새벽이 가고 아침이 오고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설 때, 씻겨진 대기와 길과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 끝자락을  
 올려다보면서, 이 살아있음의 기쁨을 한껏  
 누리리라. 크게 한 번 호흡하고.

아마도 오늘을 기점으로 여름이  
 사그라들듯 하다. 성큼 성큼 절기의 변화는  
 두려움이 없다. 정신의 맑음을 채우기 위해  
 삶을 직시할 견고한 눈빛을 기대한다. 웬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꿀  
 듯도 하다. 서둘러 베개 속에 파묻혀야  
 겠다. ●